

정치환경 변화와 포교전략

양대선거, 법회 정치마당화 우려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올해의 양대 선거는 6월중 월드컵 개최와 맞물려 불자들의 눈길을 산사에서 축구장으로, 선거관련 방송과 신문에 묶어놓을 가능성이 높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선은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불교계의 새로운 포교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한 법회에 참석한 정치인들.

정교분리 원칙과 포교전략=정치권의 '불심 잡기'는 이제 선거철을 따지지 않을 정도로 장기적인 계획이라 추진되고 있다. 정치권은 끝없이 불교 지도자와 단체를 방문해 공약을 남발할 것이다.

정치권 불자회 위상정립부터=정치권에서 불자회를 구성한 것은 1985년 경우스님이 국회에 진출한 10대 국회때부터다. 각 정당 불교신도회는 92년 대통령선거 후

'유권자 선언' 등 올바른 정치문화 선도 정당불자회 순수신행단체인가 '의구심' '지도층 불자 많아야 사회 영향력 높아'

교중층에 나서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다른 신행단체들과의 연대 및 지원사업도 전개해야 한다. 정치인 포교 대책 세우자=각 정당 불자회는 무엇보다 불교 신앙인의 모임으로, 회원들의 신심함양 그리고 청정 불국토를 구현하려는 마음이 모인 법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불교의 사회적 지도력 확대 필요=청와대 및 정당불자회, 공무원불자회 등의 조직화 및 신도교육은 사회포교를 위한 큰 힘이 된다. 이 같은 사회 지도층 불자들의 신행조직화는 불교 이익의 구현과 종교관련 문제의 대응은 물론,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과

경전에서는 불교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교의 지도적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출가인은 국왕(권력)에게 예배하지 않는다 불교와 정치의 관계를 얘기할 때 흔히 드는 예는 "출가인의 법은 국왕에게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법명경>의 가르침이다.

가난한 자 병든 자에 자비실현" 사악한 왕(권력)은 추방시키라 사악한 왕(권력)은 추방시키라 사악한 왕(권력)에 대한 태도는 매우 단호하다. "구도자는 힘과 동정심으로 이익과 안락을 줄 마음을 품고, 그에 의거하여 많은 죄악을 짓게 하는 왕위, 권세, 지배권에서 왕이나 권력자들을 추방시켜 버려라." <보살지지경>

공명당, 불교이념 정치적 구현 일본 불교의 대표적 종파인 일련정종의 신도단체인 창가학회의 정치적 실험은 정교분리의 원칙과 불교적 정치이념의 구현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창가학회 결속 '제3당' 성장 이르면 2000년 6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공명당은 비례대표의 총득표수 776만표를 획득함으로써 약 800만에 달하는 창가학회 회원의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창가학회가 표방했던 현실적인 강령인 '중도' '평화' '복지'의 이념조차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이것은 창가학회의 정치적 실험, 즉 공명당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종교이념과 현실정치의 모순 속에서 공명당이 근대적인 대중정당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인 현상"이라면서 "창가학회의 정치적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더욱 그 진행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패 정치인 가리자= '불심'은 불자 국회의원의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으며,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야 하는지에 있지 않다. 지역과 민족, 종교간의 화합과 조화로 운 발전,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자비봉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불자국회의원들을 보고 싶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명선거운동과 '유권자 선언' 캠페인 등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통한 불교의 이미지 쇄신과 바른 정치문화를 선도하는 필수적인 포교방법이 아닐 수 없다.

Advertisement for Sunmudo (World Buddhist Relief Association). Includes title '사단법인 설립공고',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USA, Canada, Austria, France, etc.), and a list of member organizations like Gulgulsa and Sunmudo University.

Advertisement for Dongguk University. Features the text '대학은 등불입니다 사람은 등불입니다' (The university is a lantern, people are lanterns) and 'www.dongguk.edu'. Includes the Dongguk University logo and name in Korean and English.